

야고보서 17 번째 말씀

차별 대우

야고보서 2:1-7

야고보는 1:1-27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실제적인 적용문제를 다룬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차별 문제이다.

-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 4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 7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2: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약에 교회내에 차별 대우가 있다면 이것은 신앙을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내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 한다. “내 형제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NRSV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수사학적인 질문은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학 형식이다. 차별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는 것은 모순 된다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영광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요성, 명예가 나타나실 때 사용한 말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별 대우는 하나님의 속성과 아주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한다면 믿음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야고보 시대에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흔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행동들의 구체적인 예가 2절과 3절에 자세히 나와 있다.

2: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2: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부를 드러내 과시한 자들을 가르킨다. 그들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특별한 대접을 한다.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무시하는 대접을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 못 되었는가를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차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를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의심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차별하다”는 뜻이 있다. 의심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여기서 차별하는 것도 믿음을 약화 시킨다는 것을 강조 한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말은 당시 흔히 있었던 부패한 재판관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불의와 부패와는 거리가 먼 정의로우 재판관입니다. 그러므로 차별하는 행위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차별 대우는 단순한 도덕적으로 비판 받을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 시키는 무서운 행위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차별이 있을 때 그의 공동체는 현저하게 세속화 되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세속화 되어 가면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차별행위가 심해 저 감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드러내 놓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현상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한가지 예로 장로, 안수 집사, 권사등의 중직이 현신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의 차별화를 가져오는 기준이 되는 것은 심히 위태로운 일이다. 인격이나 신앙에 있어서 도저히 중직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외형적인 채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중직으로 세우고 중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중직이 되지 못하는 불공평함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다.

-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야고보는 현세적인 물질의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임을 독자가 잘 알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마태복음 5:3, 누가복음 6:20)이며 구약에서도 발견 된다(삼상 2:8, 시편 14:30, 61:1). “믿음에 부요한자”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다는 의미이다. “믿음에 부요한자”란 이 세상 어떤 부요한 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부요한자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영적인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신다.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부족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

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다보면 가난하지만 충성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많이 본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한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선언의 핵심이다. 가난한 자들은 장차 올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함을 의미한다. 가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난할 때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낮은 자일수록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축복을 귀하게 여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교회가 말씀이 살아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을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

2: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괘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2:7 너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감” “훼방하는 자”**라는 표현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행위들이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 하셨다(마 5:11, 10:17-18).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말은 예수에게 속한 가난한 신자를 가르킨 말이다. 여기에서 아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자는 선택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 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특별히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우리가 거둬 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 육적인 성품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다. 그 육적인 성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성품을 찾아 내서 복음으로 해결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 대우를 통해서 아고보는 교회의 비 복음적인 죄악을 깨닫도록 돕고 회개하기를 권고한다. 차별 대우가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다.

한 선교사님이 ESF에서 발행하는 **일용할 양식**에서 이런 간증의 글을 올렸다. 자기가 선교지의 한 형제의 주례를 서게 되었다. 주례가 끝나고 결혼 피로연을 하는데 그 신랑이 10개의 꽃다발을 고마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론 주례자도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꽃다발을 받은 사람은 볼품이 없는 허름한 옷을 입었고 애꾸눈이었다. 그는 그 꽃다발을 증명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 했다. “이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최고의목공이십니다. 일생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옷 한 벌을 사입지 않으시면서 내가 대학원까지 마치도록 도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의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말은 결혼식장을 온전히 은혜의 도가니가 되도록 만들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존경 받는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 질 때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보기를 바란다.